

전남개발공사 사장 승진 인사 '말뚝'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10여일 앞두고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말뚝이다.

신출직 자치단체장 조차도 임기를 얼마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 관행인데, 임명직 사장이 막판 승진 인사를 단행하려는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임기를 마치는 양 사장은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2급 자리에 대해 조만간 승진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2급 승진 인사에 따른 3급, 4급,

퇴임 10여일 앞두고 인사 뒷말 무성 객관성·공정성 담보 의구심 제기

5급 등의 줄 승진도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양 사장의 임기가 불과 10여일 남았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기간 새로운 승진이 오기 전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임명직인 사장이 고유권한을 내

세워 인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승진 인사가 막판 보은성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조만간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시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근무평정

등을 통해 순위를 매기는 만큼 의외의 인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연임 불가 관정을 받은 양 사장 대신 지방선거 때까지 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5월과 2014년 11월 두차례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양복완·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정환 기자

약점잡아돈 뜯어낸 사이버기자 2명 적발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현)는 공사현장의 약점을 잡아 이를 보도할 것처럼 한 뒤 해당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차량이나 중장비를 사용토록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법 위반 등)로 인터넷방송 기자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역 모 일간지 기자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남 한 지역 3개 공사현장 업체를 상대로 480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B 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같은 지역 2개 공사현장을 상대로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현장 내 가벼운 불법 사항 등을 파악, 마치 이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차량이나 중장비를 업체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인가 FX 마진거래 5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성환)는 4일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FX(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마진거래를 유도,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사기 등)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또다른 1명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 보장과 고정수익을 약속하는 방법 등을 통해 투자자 149명으로부터 71억 원을 모집, 이중 8억6000만 원 상당을 미화로 환전한 뒤 FX 마진거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금 돌려 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10%의 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FX 마진거래는 외국의 통화를 개인이 직접 접근해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마진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의 소매외환거래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형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가출청소년에 절도 강요 20대 조폭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출한 청소년과 동거하며 절도 행각을 시킨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류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4월까지 광주 북구와 부산 연제구 등지에서 모텔·원룸을 얻어 가출청소년 A(15·여)와 동거한 혐의다.

류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1일 A양에게 체팅 어플로 조건만남을 유도한 남성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훔치게 한 뒤 이를 쟁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A양에게 "사귀자"고 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 2014년 "조건만남을 하는 남성들이 사귀할 때 금품을 훔쳐 오라"는 류씨의 강요로 절도죄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혼자 발행한 것처럼 진술하라"는 류씨의 협박을 따랐으며,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산단 배터리생산공장 실험동 화재

4일 오전 0시24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단지 내 배터리 생산공장 연구실험동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7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실험동에서 근무하던 직원 12명이 대피했으며, 연구실험동 전기 배선 등 20㎡가량(추정)이 타 소방서 추산 5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수명 실험 중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시 방역 작업하는 관계자들 4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실험계 농가 앞에서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소방 작년 하루 평균 560회 출동... 총 20만 3000회

전남도소방본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51만 829건의 119신고를 접수했고 진화상 임계 처리 등을 제외한 실제 출동 건수는 20만 3364회였다고 4일 밝혔다.

하루 평균 560여회를 출동한 셈이다.

119출동 유형별로는 화재 1만 360건, 구조 3만 4902건, 구급 11만 9332건, 기타 생활서비스 3만 8770건이다.

소방활동 처리 건수는 11만 8383건으로 전년(11만 3471건)보다 4.3% 늘었다.

유형별로 화재는 2963건으로 전년(2454건)보다 20.7%, 구조는 3만 1727건으로 전년(3만 1049건)보다 2.2%, 구급은 7만 8156건으로 전년(7만 5054건)보다 3.3%, 기타 생활서비스는 5537건으로 전년(4914건)보다 12.7%가 각각 늘었다.

화재 출동 가운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총 2963건으로 인명 피해는 118명(사망 19, 부상 99명)이며, 재산피해는 248억 원 규모다.

화재 발생장소는 야외 1187건, 주거시설 574건, 자동차 309건 순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59%)였고, 주로 오후 2~3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홍보 등으로 주택 사망자는 8명으로 전년(17명)보다 대폭 줄었다.

구조활동에서 실제 처리 건수는 3만 1727건이다. 4717명을 구조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4213건, 산악 430건, 수난 334건 등이다.

구급활동은 1일 평균 327건 출동해 총 8만 129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 3만

9229명, 사고 부상 1만 9208명, 교통사고 1만 2581명 등이었다.

급수 및 배수 행사 지원, 근접 대기 등 시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출동도 점차 늘고 있다.

김호경 전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분석한 소방정책 자료를 활용해 복잡한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 119, 지난해 30분마다 구조 출동

지난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30분 꼴로 한 번씩 구조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생활안전진을 포함한 구조 출동을 분석한 결과, 모두 1만7271차례 출동, 3887명을 구조해 하루 평균 47.31건 출동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구조처리(생활안전 포함)는 641건(4.09%), 구조 인원은 622명(13.95%) 감소했다.

이는 범죄 제거 출동이 1583건 감소하고 승강기 사고 구조 인원이 383명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2588건, 월요일 2627건, 금요일 2487건 순이며, 주5일 근무제로 시민들의 잦은 야외 활동에 따라 토요일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사고는 모두 1만5046건으로, 이 중 범죄 제거가 3041건(20.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 포획 2065건(13.72%), 잠금장치 개방 1656건(11.01%), 승강기 사고 1213건(8.06%) 순이다.

119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 곳은 아파트(33.65%), 단독주택(11.99%), 도로(11.7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구조출동은 북구(5078건)가 가장 많고 광산구(4812건), 서구(3388건), 남구(2207건), 동구(180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할 구별 면적과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은홍 기자

